해외건설 소식

해외건설인력 보유비중 크면 시공능력평가 가점

앞으로 해외건설인력 보유비중이 크고 교육실적이 뛰어난 업체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고, 시공능력평가제도 등에 가점이 부여된다.

이들 업체에겐 시장개척자금이 우선 지원되며 산업훈장, 대통령표창도 수여된다.

병역특례자를 해외현장으로 파견해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해외건설 인력 양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관련업계와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촉진법령을 정비, 해외건설인력 보유비중이 큰 업체를 우수업자로 지정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 범위를 해외건설현장 파견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중소기업에만 인정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해외파견의 경우 대기업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업계, 대학 등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 운영, 관계자간 일정 및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특히 플랜트 기술교육, 해외건설 실무교육 등 해외건설인력 양성과정이 없는 기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키로 했다.

이밖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 의무교육과정에 해외산업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선 건기법에 의한 법적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관리인력의 실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과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해외건설인력교육의 일환인 대학생 및 전종희망자 취업교육이 7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건설기술교육원 서울분원(☎ 02-565-0162)에서 실시될 계획이다.